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을 잘 믿고 살도록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 잘 가르쳐 주고, 사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된다.
2.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잘 모른다. 가르쳐 줘야 한다.
3. 주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해 성령과 같이 돕고 구원시키고 휴거시켜서 얼마나 잘되게 하는지를 깨닫고 살지 못하니, 주를 멀리하고, 믿고 따르지 않게 된다.
4.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원한 황금천국 세계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5.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분별할 것들이 많다. 이미 어떤 일들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다 보면 또 어떤 쪽으로 행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자기 진로나 갈 길을 두고 둘 중에 어떤 쪽으로 행해야 되는지 정말 모른다.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잘 알게 된다.
6. 하나님은 각종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시고 각자 개성대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주신다. 그로 인해 알게 하고, 얻게 하신다.

7.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다. 어떤 자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어 그를 통해 병을 고쳐 주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행하게 하시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앞날을 알게 하신다.

8. 분별의 은혜, 지혜의 은혜다! 이를 통해 알고 행하게 하신다.

9. 주가 오신 때에는 주가 가르쳐서 모두 알게 한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 주신다. 개성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알고 살게 해 주신다.

10. 같이 사는 것과 멀리서 보고 믿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살려면,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분별력이 있어 심정 맞춰 행해야 된다.

11. 남남으로 살 때는 지구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만, 사랑해서 같이 살려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 마음과 생각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12. 꾸밈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와 편하게 살아가신다.

13.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들어서 살기도 하시지만, 편하게 이미 자

신을 만든 자를 택하여 살아가기도 하신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께 받은 것을 두고, 왜 그것을 주셨는지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잘 써야 된다.
15.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겪고 살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신다.
16.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분별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네가 겪은 것을 전해라. 겪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혜의 분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17. 영계를 들어가려면, 영계로 생각을 쏘아야 된다.
18. 험한 길을 가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분별이다.
19. 사람도 물건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문제가 안 일어난다.